

17세기 경주 국당리(菊堂里) 동계(洞契)의 전통과 호혜 원리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swan@aks.ac.kr

- I. 머리말
 - II. 국당리 상동계(上洞契) '전통(傳統)'의 발견
 - III. 동계, 국당리 마을개발
 - IV. 동계와 동약, 그리고 호혜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의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AKSR2018-RC01).

I. 머리말

조선시대 토착 농촌과 현대 농촌사회에는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농촌사회 내부의 권력관계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과 분열이다. 이와 동시에 농촌 내부 권력의 지속과 절충을 목적으로 한 호혜와 협동구조가 존재하며, 이는 ‘농민의 도덕경제’로 분석하기도 한다.¹ 조선시대 농촌과 마을, 그리고 그 공간에 살았던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동계를 현대 농촌에 있어 마을 자치조직의 전사(前史)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² 그리고 동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현대 농촌개발의 동력과 원인(遠因)을 규명해 줄 수 있다.³

조선시대 동계와 동약은 토착 농촌과 그 마을의 구성원이 조직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 목적과 방향이 내재되어 있었다. 동계와 동약은 기본적으로 마을 내 혼인과 상사에 상호 부조와 화재, 도적, 질병에 대해 상구(相救)를 목적으로 하면서 공존의 역학관계를 내재하고 있었다.⁴ 조선후기 동계를

-
- 1 제임스 스콧 저,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아카넷, 2004)(J.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76)).
 - 2 이용기, 「19세기 동계의 마을자치조직으로서의 전환에 관한 시론」, 『사학연구』 128(2017); 정승진, 「羅州 草洞洞契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대동문화연구』 54(2006); 주강현, 「20세기 洞契傳統의 長期持續과 村契로서의 自治的 性格:瑞山 古陽洞 洞契文書의 歷史民俗學的傳統」, 『민족문화논총』 28(2003).
 - 3 현대 ‘개발’의 의미를 17세기 토착 농촌에 적용하고 이를 현대 농촌개발과 연결할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Suhwan, JUNG “Korean Rural Development Challenge against External Challen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64(2016); Suhwan, JUNG “Post-Development Alternative Ideas Regarding Saemaul Rural Development a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60(2015).
 - 4 鄭震英, 「16世紀 安東地方의 洞契」, 『嶠南史學』 창간호(1985), 236쪽.

비롯한 향약 등과 같은 농촌 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란이후 의병 및 그 관련 인사들의 향촌개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사족들에 의한 향촌 지배질서 구축의 측면을 강조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란 직후 17세기 동계 사례를 통해 동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 다양성을 추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농촌 동계 사례를 활용하여 호혜의 가치 발견을 시도한다. 왜란직후, 그리고 호란을 전후한 시기 국가권력의 지방 말단 행정 장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각 동리별로 생겨난 동계를 호혜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기도 했다.⁶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지역 공동체의 여러 규약을 공유자산(Commons)의 운영을 위한 제도(Institutions)로 주목한다. 제도를 주관하는 인간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제도 변화를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은 공동체의 제도변화를 호혜를 위한 협동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⁷ 이른바 공동체의 공유자산 운영을 둘러싼 호혜와 협동의 원칙이 작동하면서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며, 그 결과물로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연구 성과를 적용한다.⁸ 이를 위한 사례로써 동계를 활용하며, 분석

-
- 5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일조각, 1992);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洞契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58(1984);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한길사, 1998); 한상권,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1984); 李樹健, 「良洞의 歷史的 考察」, 『良佐洞研究』(嶺南大學校出版部, 1990).
 - 6 한도현 외 저, 『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한도현 외 저,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동계와 달리 村契를 설정하고 그 공동체적 호혜의 관계를 강조한 연구도 있다(이해준,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민음사, 1990)).
 - 7 더글라스 C.노스 저,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한국경제연구원, 1996); RIC.Putnam 저, 안청시 등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博英社, 2000). 노스는 제도(Institutions)의 범위를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동계 규약도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8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RH Korea, 2010(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The Evolution of Institution for Collective Action*(Cambridge, 1990)).

을 통해 공동체 내의 호혜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이들이 이룩한 동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유·무형의 협동의 원리를 살펴본다.

분석대상 사례는 조선 17세기 농촌의 동계이다. 조선시대 경상도 경주부 강동면 국당리에는 동계가 작동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고문서가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상동계문서'로 전하고 있다.⁹ 이 문서는 「동안(洞案)」, 「허청안(許廳案)」, 「동중상사부물차하기(洞中喪事賻物上下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안」은 1633년(인조 11)-1907년까지의 좌목을 수록하였으며, 「동중상사부물차하기」는 1674년(숙종 4)-1729년(영조 5) 사이 동계에서 계원들의 상사(喪事)에 상호 부조한 내역을 담고 있다.¹⁰ 이 논문은 「동안」과 「동중상사부물차하기」를 중심으로 17세기 국당리 동계가 실시되던 농촌 마을 전통의 실제와 이를 통해 공유하고자 했던 호혜의 가치를 추적한다.

17세기 경주 강동면 국당리 동계가 지니고 있는 호혜를 위한 네트워크의 실제와 제도 개발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 농촌개발을 성취할 수 있었던 호혜의 요소 발견을 시도하는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석한다. 먼저 국당리 동계에 대한 현재적 인식인 '전통'에 대한 분석을 통해 17세기 동계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계를 통해 마을을 개발하려 했던 노력의 내용을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동계와 동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상사에 있어 상호부조를 통한 호혜의 내용을 규명한다.

-
- 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 No. 35-9932. 1998년 동계 문서를 최초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연구자는 조철제이다. 그의 보고서(「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九思齋」, 1998)에 따르면, 1894년 흥년으로 계회가 이루어지던 上洞書社를 비운 사이 계의 서문이나 절목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안의 首卷과 선조의 繪音이 일실되었다고 한다.
 - 10 상동계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到記」(1965년-2015년)와 「都錄」(1923년-2015년)을 작성하고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계원 진준현, 권혁근, 최병찬 선생으로부터 자료 열람 및 구술의 도움을 받았다.

II. 국당리 상동계(上洞契) ‘전통(傳統)’의 발견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는 상동계가 실시되고 있다. 지역 사회는 상동계가 임진왜란 직후 창설되어 40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하나의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다.¹¹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1932년 간행한 『경주읍지』에 수록되어 있는 상동계 내용과 관련이 있다.¹²

상동서사(上洞書社)를 짓고 여씨(呂氏)와 주자의 향약을 따라서 풍속을 바로 잡으니 일대가 달라지는데 이르렀다. 옥원(玉院)에서 『정속언해(正俗諺解)』 및 『향약』 2책을 보내서 이것으로 상동계를 격려했다. 그 계안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전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취가 된다.¹³

상동계와 관련한 내용은 『경주읍지』에 권복시(權復始, 1556-1636)의 행적으로 수록했다. 인용문은 ‘상동서사’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향약의 요목을 반영한 계가 존재했으며 그 과정에서 옥산서원의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권복시에 대해서도 안동권씨 권산해(權山海, 1403-1546) 후손으로 임란 이후 녹훈 되었으며, 인근 동리의 사족을 규합하여 향약을 실시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¹⁴ 그가 창립한 계의 목적은 ‘돈예양(敦禮

11 흡스봄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과거를 재구성한 결과로써 ‘전통’을 규정하고 있다(Hobsbawm, Eric. ‘Mass-Producing Tradition: Europe, 1870-1914’, in Hobsbawm, Eric. and Ranger, Terence.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263-264).

12 趙喆濟, 「慶州邑誌 해제」, 『국역 경주읍지』(경주시·경주문화원, 2003), 19쪽. 간행처는 국당리에 속한 有琴里에 있던 彰文社였으며, 간행 주도 인물은 孫祥翼, 李源護, 金鎔濟, 權憲鎭, 李錫新, 李源學, 權赫世, 李錫奎 등으로 계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13 『慶州邑誌』권5, 列傳, 權復始條.

讓), '규과실(規過失)', '홀환난(恤患難)에 있었으며, 전란후 어지러운 지역의 풍속을 크게 안정화 하는데 기여했다고 있다.¹⁵ 상동계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오늘날까지 상사(喪事) 부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발견은 이미 19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었음을 동계의 입의(立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洞)은 다른 리(里)와 달리 선조들의 자취가 있는 오래된 동으로 강목을 세운 것이 가장 먼저이고 지난 세월도 오래되었다.¹⁶

1898년(고종 35) 2월 17일 개정된 입의는 계의 유구한 전통을 강조했다. 상동계가 경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계원들의 자취, 즉 결속과 지속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상동계가 창설된 시점은 임진왜란 직후로 알려져 있다. 권복시는 전란 뒤 성리학 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고 예교(禮敎)가 해이해진 현실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향약을 실시했다고 한다.¹⁷ 이러한 인식은 이후 1996년 상동계의 설립 시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권복시가 1598년(선조 31) 말에 향약을 선포하고 곧이어 상동서사를 축조한 것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되었다.¹⁸

상동계의 구성원과 공간적 배경 등은 현재까지 계가 지속됨에 따라 계원들의 구술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계원들은 상동계가 창립되고 마을의 질서가 잡히자 선조(宣祖)가 마을에 윤음(綸音)을 내렸다고 믿고 있다. 의관을 정제한 계원이 이 윤음을 낭독하는 것으로 상동계회는 그날

14 『安東權氏佐尹公派 判官公世系譜』; 權赫元, 『九思齋年譜』(九思齋精舍, 1996), 133-134쪽.

15 柳奭佑 撰, 「九思齋權公碑文」(1980년).

16 『新案』, 「洞契立議」(戊戌2月日).

17 權相圭 撰, 「九思齋移建記」(1863년).

18 權赫元(1996), 앞의 책, 133쪽·208쪽.

모임이 개시되었다고 한다.¹⁹ 그리고 상동계는 6개 마을의 6개 문중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사실로 현재 전하고 있다. 이들 마을과 주요 성씨는 중명리 서산유씨, 유금리 아산장씨, 국당리 내동 안동권씨, 국당리 외동 경주최씨, 오금리 신광진씨, 그리고 왕신리 손발골 영일정씨이다.²⁰ 6개 성씨가 거주하는 6개 마을은 자연촌으로 현재 행정촌 국당리에 속한다.

계의 이름 '상동계'와 관련한 현대 계원들의 인식이 있다. 상동계의 명칭은 1936년 '상동취회(上東聚會)'로 기록하거나, 1940년-1942년간 계금 운영 현황을 기록한 '도록(都錄)'에 『상동계도록(上東契都錄)』으로 표기했다.²¹ 이러한 '상동(上東)'에 대해 상하 순환과 동서 음양의 원리로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²² 그리고 '상동일우(上洞一隅)'라 하여²³ 공간적 위치에 따라 부여된 상대적 개념으로써 '상동(上洞)'으로 인식하기도 했다.²⁴ 그러나 현재 '상동'이라는 이름은 동리의 위치에 따른 명칭이 아니라 주변 여러 부락들 중에서 사회적 우위에 있는, 즉 이른바 양반 마을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계원들은 이해하고 있다.

정리하면, 경주 국당리 상동계는 임란 직후 권복시 주도로 여섯 마을 여섯 성씨의 대표가 모여 조직되었으며, 향약의 조목을 적용하여 이른바

19 權赫元(1996), 앞의 책, 134쪽.

20 1965년부터 기록하고 있는 「上洞契 到記」에는 中明里, 有琴(有今)里, 菊堂里, 旺信里 寶巖里, 吾琴里를 계의 대상 마을로 적고 있으며, 1923년 이후의 내용을 수록한 「上洞契 都錄」에는 蔣氏門中, 陳氏門中, 鄭氏門中, 柳氏門中, 權氏門中, 崔氏門中을 중요 성씨로 밝히고 있다.

21 『上洞契都錄』(甲戌), 丙子3月21日上洞聚會; 『上東契都錄』(庚辰·辛巳·壬午).

22 權赫元(1996), 앞의 책, 137-138쪽.

23 金溍模撰, 「九思齋上梁文」(1923년).

24 경주 외동읍 방어리에도 17세기 창설한 동계가 계승되고 있으며, 그 명칭은 17세기 射契에서 1841년 상동계로 변했다. 방어리의 경우, 계원들은 상동계의 의미를 향리에 봉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有司 李根雨, 「上洞契事蹟抄」·「文化遺蹟史料調査記」(1993)).

향풍을 진작시켜 국가의 포양을 받았다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400년간 지속된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동계에 대해 17세기를 중심으로 설립 초기의 실재를 추적함으로써 그 가치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Ⅲ. 동계, 국당리 마을개발

1. 17세기 국당리 동계

국당리에 동계 설립을 위한 사회적 배경으로 임란 직후 경주일대에서 있었던 전후 복구 움직임 들 수 있다.²⁵ 경주부의 고적이 병화에 모두 망실되고 남은 자료는 『지리지』와 『선생안』을 포함한 일부뿐이었을 정도로 왜군의 진군로에 위치한 경주의 피해가 극심했다.²⁶ 전란이 종결되자 경주부윤 박의장(朴毅長, 1555-1615)은 1599년(선조 32) 옥산서원 유생들에게 유안(儒案) 정비와 독서를 강조하는 ‘약조(約條)’를 내렸다.²⁷ 같은 해 12월 27일 선조는 경주와 울산 두 고을의 장사(將士)들에게 교서를 내려 황희안(黃希安) 등 215명에게 호향(犒饗)하고 목포(木布)를 발급했다.²⁸ 이듬해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은 서악서원(西岳書院)을 재건했다.²⁹

25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동계는 ‘국당리 동계’이나, 17세기에는 동계의 중심 마을로써 국당리가 대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당리 상동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17세기 국당리 일대의 동계를 ‘국당리 동계’로 통칭한다.

26 『府尹先生案』, 府尹尹仁涵條.

27 朴毅長, 『觀感錄』, 「諭玉山書院儒生文」.

28 『東京雜記』 권3, 「雜著補遺」 宣諭記事.

29 『輿地圖書』, 端廟, 西岳書院.

1601년(선조 34) 동지사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전란 후 사회질서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향약으로 상징되는 지역 사족들의 자치규약 장려를 주장했다.³⁰ 이러한 일련의 전후 수습 노력은 1605년(선조 38) 선무원 종공신 9,060명을 녹훈함으로써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전란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7세기 계속된 혼란은 지역 엘리트들의 사회 안정을 위한 참여 동기로 작용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과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위기의식은 경주를 포함한 전국의 사족이 공유하고 있던 현상이었다.³¹ 특히, 17세기 동안 사회 경주 사회는 혼란으로 인한 불안을 지속하고 있었다. 1630년(인조 8) 영천, 경주 등 인근 8개 고을에서 도적이 창궐하였으며, 관은 대대적인 체포활동을 통해 관련자 17명의 자복을 받아내고 참형을 실행했다.³² 1660년(현종 1) 경주 일원에 도적들이 출몰해서 관아를 습격하는 사변도 발생했다.³³ 그리고 경신대기근(庚申大飢饉, 1670-1671)과 을병대기근(乙丙大飢饉, 1695-1696)으로 이어지면서 경주일대 사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³⁴

사회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엘리트 사족들은 동계를 구상했다.

30 『선조실록』141권, 선조 34년 9월 경자(6일). 17세기 이후에도 정부는 사족들의 향약 시행을 권유하면서 한편으로 1634년(인조 12) 사목을 마련하기도 했다(이광우, 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 『東亞人文學』 39(2017), 158-159쪽), 밀양향약은 17세기 중엽 재지사족이 주도하면서 수령의 협조를 얻는 官府 협조형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장동표, 「조선시기와 명청대의 鄉約 시행과 그 성격 비교 연구」, 『한국민족문화』 58(2016), 17쪽).

31 일례로 충청도 예산 지역에 거주하던 趙克善(1595-1658)은 일기에 '西戍軍' 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지역 사족의 노력이 10년 동안 지속되는 상황은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었다(『忍齋日錄』第4, 辛酉年-1621년 秋 8월7일; 『洽谷日錄』第5, 壬申年-1632년 9월 14일).

32 『인조실록』23권, 인조 8년 8월 무신(1일), 9월 정축(1일).

33 『현종실록』3권, 현종 1년 7월 갑자(11일).

34 박종천, 「공감과 개방의 문화공동체, 석천마을」, 『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106쪽.

일례로 임란 직후 손기양(孫起陽, 1559-1617)은 군위 지역의 동계를 장려하였으며,³⁵ 경주 선비 정극후(鄭克後, 1577-1658)는 1651년(효종 2) 지역의 동족들과 족계(族契)를 조직하기까지 했다.³⁶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조선의 개조를 위해 향약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향약사목(鄉約事目)」을 고증하기도 했다.³⁷ 사족을 중심으로 무너진 향안을 중수하거나 향사당, 향약, 동계 정비나 서원의 중수에 적극 참여한 현상은 17세기 사료에서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³⁸ 17세기 국가에 의한 전후수습과 사회 안정 노력, 그리고 지역사족의 대응 일환으로 향약이나 동계의 중수가 있었다. 경주지역 사족들도 동계의 설립을 가속하고 있었으며, 그 중 국당리 동계가 있었다.

국당리 상동계의 전통은 1598년(선조 31) 시작한 것이 아니라 17세기 전반의 동계에서 출발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국당리 「동안」은 수권(首卷)인 ‘천권(天卷)’이 전하지 않아 정확한 설계(設契) 시점을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상으로는 1633년(인조 11)이 가장 오랜 내용이다. 수권의 기록이 있었다고 추정할 경우, 동계의 창설 연대는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전 동안 중 1633년-1697년(숙종 23)에 이르는 17세기 좌목의 개안(改案=改書, 重修) 주기를 참고로 확인할 수 있다.

35 孫起陽, 『鰲溪先生文集』, 「缶溪洞憲序」. 손기양은 임란 후 향안 복구를 비롯하여 서원 중건 등을 통해 밀양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했다(장동표, 「17세기 초반 밀양 재지사족 孫起陽의 향촌활동」, 『한국민족문화』 34(2009)).

36 鄭克後, 『雙峯集』, 「三邑同宗契節目」.

37 柳馨遠, 『磻溪隨錄』卷9, 「鄉約·鄉約事目」. 유형원이 제시한 인재상은 능력 있는 士, 직업을 가진 士였다(鄭求福, 「磻溪 柳馨遠의 事會改革思想」, 『歷史學報』45(1970), 23-24쪽).

38 이러한 활동을 사족들이 자기 기반을 복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했다. 동계를 통한 사족간의 상부상조이자 결속력 강화의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정진영(1998), 앞의 책, 190-191쪽).

표1-17세기 동계 동안 자료와 입력 현황

권	地			玄			黃		宇			宙		洪		荒		
연도	33	35	36	36	37	40	42	44	46	50	51	52	54	57	58	62	63	64
개·추	改	追	추	개	추	추	추	개	추	개	추	추	개	추	개	추	개	추
계	26	8	1	32	1	1	4	31	3	30	4	2	28	5	36	1	32	4
소계	35			38			34		36			33		37		36		

권	日			月			盈					仄		辰		宿		
연도	67	67	69	70	74	76	77	78	79	80	82	83	85	89	93	93	93	97
개·추	개	추	추	개	추	추	추	개	추	추	추	추	개	추	추	개	추	개
계	32	4	3	31	6	1	1	24	3	1	5	2	34	9	8	44	1	37
소계	39			39			35					51		45		37		

* '권'은 洞案의 卷次, '연도'는 1600년대 작성연도, '개·추'는 改案과 追入이다.

동안의 각 권별 개안 시기는 3년에서 8년으로 부정기적 이었다. 단순히 동안의 개안 주기만으로 추정한다면, '수권'의 작성 시기는 '지권(地卷)'을 기준으로 개안주기를 적용할 경우 1630년(인조 8)-1624년(인조 2)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동계의 설계 시기는 동안에 입록(入錄)한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당리 동안 좌목의 인물과 관련한 족보기록을 활용하여 동계의 설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부록 참조). 1658년(효종 9) 동안부터 입록자의 생년을 기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같은해 해당좌목에 올라있는 36명을 연령순으로 수록되고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58년 좌목 인물 중 1633년 좌목에서 확인되는 10명도 연령순으로 기재하고 있다.³⁹ 이들 10명 중 1633년 59세의 박세지(朴世智)보다 연장자는 정광국(鄭光國, 1546-1604), 진식(陳澁, 1554-1655), 정창국(鄭昌國, 1566-1634), 박세신(朴世信) 4명이며, 가장 연소자로는 27세의 최시번(崔是藩)이다. 그리고 17세기에 동계 좌목 인물 중 족보기록을 통해 생몰년이 확인 가능한 인물로서 가장 연소자는

39 이들 10명은 입록순으로 朴世智(1575생/59세), 崔弘濬(1590생/44세), 陳益亨·陳敏亨(1601생/33세), 鄭克威(1602생/32세), 崔達道·崔是垣·權鑿(1605생/29세), 崔是藩(1607생/27세), 李榮茂(1579생/55세)이다.

1646년(인조 24) 동안에 입록된 권경현(權景賢)과 1693년(숙종 19) 동안의 이만갑(李萬甲)으로 이들은 20세였다. 이들을 참고로 동안 입록 연령의 하한을 20세로 가정한다면, 1633년 「동안」의 최시번이 20세가 되던 해에 동계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본다면 1627년(인조 5) 경에 국당리 동계가 조직되었다고 하겠다.

국당리를 중심으로 6개 마을에서 구성 및 운영했다는 상동계의 전통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17세기 초 경주 일원의 마을은, 특히 조선후기 대표적 양반마을인 강동면 양동리의 경우에도 4-5개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이성잡거(異姓雜居)가 일반적이었다.⁴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경우 동계가 설립될 1627년경 국당리 일대에 ‘이성잡거’하는 상황에서 마을개발의 일환으로 동계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계 설립에 참여한 성씨의 거주지는 6개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마을의 성격을 추적할 수 있다.

동계 구성원들의 거주지로 알려진 6개 마을은 16세기부터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국당리와 유금리는 16세기 분재기와 매매명문에 등장한다. 1510년(중종 5) 『손중돈남매화회문기(孫仲墩南妹和會文記)』에는 ‘국당원(國堂員)’ 소개 논의 확인되며, 1543년(중종 38)-1572년(선조 5) 손광서(孫光曙)가 매득한 11건의 전답매매명문에서 ‘유금평·원(有今坪·員)’이 있다.⁴¹ 17세기 기록 중 국당리 동계와 관련한 마을 기록이 있다. 1669년(현종 10) 편찬된 『동경잡기』에 강동면에 오금(五琴), 유금(有今), 중명(重明) 마을이 확인된다.⁴² 그리고 동계와 관련한 여섯 마을은 1789년(정조 14) 『호구총수』 기록

40 양동리는 李氏, 柳氏, 孫氏, 蔣氏, 姜氏 등이 잡거했으며, 당시 洞은 사족들의 생활 영역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同姓一門뿐 아니라 女婿와 外孫을 포괄하고 있었다(李樹健(1990), 앞의 논문, 19-20쪽).

41 李樹健 編著, 『孫仲墩男妹和會文記』, 『慶北地方古文書集成』(嶺南大學校出版部, 1981), 283-286쪽;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32-慶州 慶州孫氏篇(1997), 352-355쪽.

중 왕신리(旺信里), 국당동(菊堂洞), 빈암리(賓巖里), 중명동(中明洞), 오금리(五琴里), 유금리(有今里)로 파악되었다.⁴³ 이들 동리 기록은 마을의 형성이나 정체성 확립 추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마을형성과 관련한 기록들은 동계 설립의 주도 공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다. 16세기 국당리와 유금리 일대 지역에 여러 성씨가 흩어져 살다가 17세기 초 오금리, 중명리, 유금리에 거주하는 사족들 중심으로 동계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8세기 중엽 이후 6개 동리가 형성되었으며, 18세기 후반 동계를 '상동계'로 중수하는 과정에서 국당리가 중심마을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1771년(영조 47)부터 1836년(순조 36)까지 작성한 『허청안(許廳案)』에 계원을 '추입(追入)'하고 '상동(上洞)'으로 부기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방어리 동계가 1841년(헌종 7) 상동계로 개칭하고 중수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⁴⁴

2. 호혜 네트워크, 계원(契員)

국당리 상동계는 상사 부조라는 호혜를 위해 계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들 계원을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가 있었다. 이미 살펴본 내용과 같이 1627년즈음 동계가 성립될 당시 국당리를 비롯한 인근 마을이 형성되는 내력과 그 공간에 사족이 거주한 배경이 있었다. 동계를 구성한 각 성씨별 이거 및 입향 내력을 통해 계원의 네트워크 구성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동계의 계원 구성에 있어 시차와 운영 범위의 변화는 동계에 입록한 인물들의

42 『東京雜記』권2, 各坊·各同.

43 『戶口總數』8, 慶尙道 慶州 江東面.

44 주24 참조.

가계 내력을 바탕으로 추적한다. 현전 가장 오랜 1633년 동계에 입록한 인물 중 연장자가 포함된 가계는 영일정씨, 신광진씨, 경주최씨, 안동권씨, 영천이씨였다(부록 참조).

동계가 성립된 국당리 일대에는 경주 인근 토성(土姓)이 선주하고 있었다. 신광진씨는 경주부 속현 신광현의 토성으로 조선초기부터 이 일대에 세거하고 있었다.⁴⁵ 왕신리에 분묘를 마련한 진선(陳善, ?-?)이 이 마을에 정착했으며, 그 시점은 그의 현손 진계범(陳繼範, 1499-1555) 생졸년을 참고할 경우 15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진계범의 손자 이후로 동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증손자 진식·진옥(陳沃, 1574-1646) 후손 계열은 동계를 주도했다(부록 5). 그리고 경주의 또 다른 토성인 경주최씨는 최정설(崔井濩, ?-?)의 분묘를 왕신리에 마련하고 입향했다. 시점은 그의 손자 최승곤(崔承坤, 1484-1520)의 생졸년을 고려했을 때 15세기 전반이었다. 경주최씨 중 동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계열은 최승곤 세 손자의 후손들로, 그 중 최사홍이 가장 연장자였다(부록2).⁴⁶

혼인과 복거(卜居)를 통해 국당리 일대에 정착한 가계가 있다. 영일정씨 족보에는 정문빈(鄭文淋, ?-?)이 경주에 시거(始居)하였으며, 그의 아들 정수영(鄭壽永, 1505-1531)이 경주최씨 최정설 딸과 혼인하면서 빈암리에 정착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⁴⁷ 이로 볼 때 영일정씨는 16세기 초 국당리 인근 빈암리에 입향했다고 하겠다. 정수영의 손자 정광국, 정창국 형제는 1633년 동계의 연장자로 동계 창립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록 4). 안동권씨는

45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州府 姓氏條.

46 경주최씨의 경우, 족보와 동안의 생년기록에 상이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崔達道, 崔達文, 崔達遵은 족보에 1606, 1609, 1612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안에는 각각 1605, 1610, 1631년생이다.

47 『迎日鄭氏貞肅公派譜』(己亥譜)에는 그의 처를 永陽李氏로 적고 있으나, 『慶州崔氏家譜』(1948); 『慶州崔氏從仕郎公派譜』에는 崔井濩으로 밝히고 있다.

권철손(權哲孫, ?-?)이 15세기 중엽 예천을 떠나 경주에 입향한 후, 손자 권순경(權舜卿, ?-?)이 정문빈의 딸과 혼인하면서 왕신리 일대로 입향했다. 그 시점은 16세기 전반이었다. 권순경의 손자 권복시의 후손들이 동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가장 연장자는 권형(權瑩, 1589-1657) 형제였다(부록1). 영천이씨의 경우, 1633년 동계에 입록된 이영무(李榮茂, ?-?)가 당대에 오금리에 복거하면서 동계에 함께했다.⁴⁸ 그의 후손들은 17세기 동안 동계에 지속 참여했다.

동계를 창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17세기 당시 계의 공간적 배경과 창립에 참여한 성씨의 구성은 현재 '전통'과 상이했다. 15세기 왕신리 일대에 정착한 신광진씨와 경주최씨를 비롯하여 16세기 빈암리 영일정씨, 왕신리 안동권씨, 오금리 영천이씨가 1627년 동계 창립에 참여하였다. 즉, 왕신리, 빈암리, 오금리 일대의 3개 마을 사족들을 중심으로 동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동계 참여 인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공간도 확대되었다. 1667년(현종 8) 「동안」에 유금리에 거주하는 아산장씨가 입록되었으며, 1685년(숙종 11)에는 증명리 서산유씨 인사가 동계에 참여하면서 17세기 말에는 5개 마을을 중심으로 계를 운영하였다고 하겠다.

국당리 동계는 '상동계' 전통에서 전하듯이 6개 성관으로 창립하지 않았다. 적어도 17세기까지는 왕신리, 빈암리, 오금리에 기반을 두고 동계가 창립되었으며, 이후 유금리와 증명리 거주 사족이 17세기 후반 동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5개 마을은 18세기 이후 국당리를 중심으로 동계가 운영되면서 국당리 등 6개 마을의 '상동계' 전통으로 재편하였다고 하겠다. 더불어, 동계 설립을 중도한 인물은 이들 마을의 역사와 1633년 「동계」 연장자들의 기록을 고려했을 때 정광국, 진식, 최사홍

48 이무영의 분묘는 오금에 있으며, 그의 부친李文同은 경주의 川北面 方父洞에 묻혔다(「永川李氏上將軍派譜」).

표2-17세기 상동계 改書에 기록된 각 성관별 입록 인원 분포 추이

연도	1633	1636	1644	1650	1654	1658	1663	1667	1670	1678	1685	1693	1697
성씨	최(8)	최(10)	최(10)	최(10)	최(7)	최(10)	최(10)	최(10)	최(7)	최(6)	최(8)	최(8)	권(8)
	진(5)	진(5)	진(6)	권(6)	권(6)	정(7)	정(5)	진(6)	정(5)	정(6)	정(8)	정(8)	정(6)
	정(4)	정(5)	정(4)	진(5)	정(5)	권(6)	진(5)	권(5)	진(5)	진(4)	권(7)	권(8)	최(6)
	권(3)	권(5)	권(4)	정(4)	진(4)	진(5)	권(4)	정(3)	권(5)	권(4)	진(3)	이(8)	이(6)
	박(3)	박(2)	박(2)	이(2)	이(4)	이(4)	김(3)	이(3)	이(4)	이(1)	이(3)	진(4)	진(4)
	이(1)	이(2)	이(2)	안(1)	안(1)	안(1)	이(3)	김(2)	김(2)	김(1)	김(2)	김(3)	김(3)
	안(1)	안(2)	안(1)	오(1)	박(1)	오(1)	안(1)	오(1)	장(2)	오(1)	오(1)	유(2)	박(2)
	강(1)	오(1)	오(1)	박(1)		박(1)	오(1)	박(1)	오(1)	박(1)	박(1)	박(2)	유(1)
계원	26명	32명	31명	30명	28명	36명	32명	32명	31명	24명	34명	44명	37명

* 성씨는 입록자가 많은 순. 괄호 속 숫자는 입록자 수.

(崔士弘, 1591-1644), 권형, 이영무로 볼 수 있다.

국당리 동계는 6개 성씨가 중심이 되어 창립되고 운영했다는 전통에 대해서도 좌목을 통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전 가장 오래된 동계 기록인 1633년의 좌목에는 8개 성씨가 수록되어 있다. 1633년 8개 성관으로 시작한 동계는 17세기 동안 12개의 성씨를 포괄하였다. 이들 12개 성씨는 강씨, 권씨, 김씨, 박씨, 안씨, 오씨, 이씨, 유씨(柳氏), 장씨(蔣氏), 정씨, 진씨, 최씨로 이들이 동계의 네트워크 범위였다.⁴⁹

17세기의 동안기록에는 동계를 구성하는 주요 성관들의 출입이 있었다. 1633년 8개 성관이 참여한 이후 1636년 오씨, 1644년 김씨, 1667년 장씨, 1685년 유씨가 각각 동계에 동참했다.⁵⁰ 반면, 계에서 빠져나간 성관도

49 경주 안강현 일대에는 경주손씨와 여주이씨 외에도 안강·기계·신광현 일대에 세거해온 경주이씨, 경주김씨, 청안이씨, 영일정씨, 안동권씨, 신광진씨 등이 있으나(李樹煥, 『書院의 歷史와 그 所藏資料』, 『玉山書院誌』(嶺南大學校出版部, 1993), 42-43쪽), 동안 입록 인물과 관련한 성관 12개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0 오씨는 1635년 9월 吳邦弼, 김씨는 1640년 1월 金澤麗, 장씨는 1644년 9월 莊儁 그리고 유씨는 1679년 1월 柳斗元의 추입을 계기로 계에 참여했다.

있었다. 장씨는 1633년 개안에서 강선립(姜善立)만 1회 확인되며, 안씨는 안득남(安得男)·안득우(安得祐)·안천명(安天命)이 1633년-1663년 개안에만 올랐고 그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다. 장씨는 1670년 장희(莊僞)와 장흥진(蔣興震)부자 외에는 17세기의 동안에 등재되지 않았다.

동계 참여와 관련한 규약은 남아 있지 있으나 사족의 거주지가 변동할 경우 동계에 출입이 있었다. 타관(他官)이나 타면(他面)으로 이거한 계원은 더 이상 동안에 입록될 수 없었다. 안천명은 1635년 9월 동안에 추입 되었다가 이듬해 11월 '타면이거(他面移居)'라고 부기된 후 동안 기록에서 사라졌다. 진덕형(陳德亨)도 1664년 10월 동안에 추입된 후 1667년 4월 '타관이거(他官移居)'로 기재되면서 더 이상 동안에 입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계기록을 확인했을 경우 경주최씨 영일 입향계열, 신광진씨 영덕·홍해로 이거한 가계, 영일정씨 기계·홍해 입향 계열은 동계 좌목에 더 이상 기재되지 않았다(부록 참조).

계원의 구성과 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17세기 동계 입록 계원 수는 모두 118명이다.⁵¹ 계안의 개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계원은 1633년의 26명에서 1693년 44명까지 구성되면서 부침이 있었다. 계원의 증가는 가계를 검토해 보았을 때 자연 증가에 따른 결과였다(부록 참조). 동계 구성의 63.6%-83.3%를 점하고 있던 주도 성씨는 신광진씨, 경주최씨, 영일정씨, 안동권씨와 같은 4개였다.⁵² 신광진씨 진계범(陳繼範)계열, 경주최씨 최윤승(崔胤曾)계열, 영일정씨 정수영(鄭壽永)계열 그리고 안동권씨

51 계원 중에는 생년, 字의 동일여부와 개명 기록을 통해 동명이인을 확인할 수 있다. 權斗重과 權義重은 생년이 동일하며, 陳尙恪과 陳聖準은 생년과 字가 동일한 사례이다. 그리고 崔泰健은 崔世璋로 개명한 것으로 동안에 밝혔다. 이들 118명이 동안에 기록된 사례는 총 495건이다.

52 동계에서 네 성씨의 비중은 1693년의 63.62%에서 1650년과 1678년 83.3%에 이르렀다.

권복시계열이 동계의 중추를 구성했다.

계원 구성에 대한 엄격한 제약의 부재로 동계 구성 성씨 사이 역학관계에 변화가 있었다. 경주최씨는 7명-8명의 계원을 유지하면서 1650-1660년대 까지 전체 계원의 1/3을 차지하면서 동계의 중추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계를 주도한 성씨 중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경주최씨, 신광진씨, 영일정씨 구성원 중 다른 군현으로 이거한 가계가 동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계에서 각 성씨의 비중에는 변화가 유발되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에는 특성성씨가 과점하지 않고 상위 4개 성씨(최,정,진,권)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말에 이르러 안동권씨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주도 성씨로 대두했다(표2).⁵³

IV. 동계와 동약, 그리고 호혜

1. 호혜를 위한 규약

국당리 동계는 송림(松林), 관개(灌溉) 등과 관련한 유형의 공유자산(Commons) 관리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원사이의 상사 부조라는 호혜를 위한 구성원 사이 무형의 공유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당리 동계에 있어 호혜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동계의 규약이 현재 전하고 있지 않아 호혜를 위한 운영의 원리 전모를 알 수는 없다. 다만, 1636년 「동안」에 안천명이 '타면이거(他面移居)

53 국당리 동계는 18세기 이후 안동권씨가 주도 성씨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18세기 후반의 상동계 재편 과정에서 동계 창설자로서 권복시를 형상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준동약(未遵洞約)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17세기 동계에 규약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동안」의 기록을 토대로 17세기 동약을 유추한다.

동계 가입에 대한 규약 중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17세기 4-6개 마을의 사족 8-12개 성씨를 주축으로 동계를 구성했다. 동계 참여는 국당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4-6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족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사실은 동계 문서 중 타관(他官)이나 타촌(他村), 타면(他面)으로 이거(移居)할 경우 동계에서 더 이상 좌목에 오르지 못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⁵⁴ 이러한 사례는 인구 유입에 따른 추가 가입은 가능하나 사퇴를 불허함으로써 조직의 혼란을 방지했던 금송계(禁松契)와 차별된다.⁵⁵ 이러한 동계구성원의 유연성은 1667년 유금리 아산장씨와 1685년 중명리 서산유씨의 동계 참여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계 운영 조직에 대한 제도가 있었다. 동계 창설 초기에는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33년-1642년까지 실시된 7회의 개안과 추입 기록에는 동계의 조직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 1644년 개안부터 동계의 공무원(公事員)과 유사(有司) 기록이 각 1명씩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1650년 개안부터 공무원 1원에 유사 2원으로 구성했다. 1663년 개안부터는 이들에 대해 성(姓)만 기재하던 관행에서 성명을 모두 밝혀 동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1677년 동안부터 공무원과 유사는 동임(洞任)으로 통합하되, 상청 2원과 하청 1원으로 구성하였다.⁵⁶

계원의 자격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동안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4 18세기에도 동일하게 운영했다. 1713년 崔後寔, 鄭之胤은 ‘他官移居’, 1729년 鄭重璉 등이 ‘他村居’, ‘他村移居’를 이유로 동안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1806년 權宗德이 ‘自退’하는 등 19세기에는 동안에서 ‘自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55 한미라, 「조선 후기 가좌동 禁松契의 운영과 기능: 경기 양성현 『禁松契座目』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5(2011), 156-157쪽.

56 『洞中喪事贈物上下記기』에는 1678년 洞長 別監 陳益亨이 있다. 1758년 추입기록부터 洞任은 1員만 기재되며, 1819년 改案에는 洞首, 公事員, 有司 각 1원씩을 명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18세기 작성된 입의(立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까닭 없이 평인(平人)을 통청(通廳)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것이 곧 각동(各洞)의 예규(例規)이다. 그런데 우리 동은 본래 그런 규례가 없었다. 예전부터 다만 수 3명을 허가하였는데, 새로운 동을 창건한 뒤 그 수가 더욱 많아졌다.⁵⁷

1771년(영조 47) 1월 16일 동계 「허청안(許廳案)」 입의이다. 입의에 따르면, 동계는 적어도 18세기 중반까지 인근의 여느 동계와 달리 이른바 적서(嫡庶) 혹은 반상(班常)에 따른 참여의 제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⁵⁸ 동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633년과 1636년 개안(改案)까지 문서상 계원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1644년 동계를 개안한 이후 간헐적으로 상·하단 구분을 통한 차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강력한 규약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겠다.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표출된 사건도 있었다.

17세기 중반 동계 내부 갈등은 동약의 변화를 수반했다. 동계가 창립된 후 한 세대가 지난 1658년(효종 9) 11월 24일 계원 최진남(崔鎭南)을 비롯한 7명에 대한 ‘효주삭거(爻周削去)가 있었다.⁶⁰ 그 사유는 “청의 아래에 있기를

57 「許廳案」(辛卯正月).

58 18-19세기 경기도 금송계의 경우 주도 사족과 더불어 상민과 노비도 포괄하는 상·중·하계를 구성하여 공동체의 통합과 통제를 도모하기도 했다(한미라 (2011), 앞의 논문, 154-156쪽).

59 1644년 改案 당시 상·하단 구분을 하다가 다음 개안이 실시된 1650년 다시 사라진 점을 볼 때 초기 동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약이 엄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8세기 중후반 영천의 「망정향약」에는 좌목을 신분에 따라 上·中·下 廳으로 구분한 사례가 있어 대비된다(정진영(1998), 앞의 책, 416-417쪽).

60 『洞案』 宙, 甲午(1654)十月日洞案改書. 대상이 된 7명은 崔鎭南, 李煥, 李炯, 鄭克一, 李煜, 鄭克恕, 鄭佑周였다.

꺼려해서 죄중을 무시하고 서둘러 먼저 철거한 것은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다.”였다.⁶¹ 동계 내부에 잠재해 있던 신분 의식이 어떠한 이해 충돌로 인해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이었다.⁶² 분쟁의 내용은 경주 방어리 동약의 죄목 중 불효와 적서 분쟁을 ‘상죄(上罪)’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삭거 조치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⁶³ 이를 계기로 다음 달 개안(改案)을 실시하면서 패선으로 상·하를 구분하여 동안을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거되었던 최진남 등을 이후 동안에 계속 수록하고 있어,⁶⁴ 동계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공동체의 호혜 체계 지속을 도모했다.

동계 내부의 갈등과 그로 인한 규약과 조직의 변화가 초래된 것은 동계 인근 마을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1650년(효종 1)경 건립된 형산강 인근의 만귀정(萬歸亭)은 ‘동해상선(東海商船)들이 정박하는 요충지였다.’⁶⁵ 이 정자주변은 조선초기부터 형산포(兄山浦)를 출입하는 배들의 정박지로 일대에 상업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주변에는 국당 나루터와 부조(扶助) 나루터를 비롯하여 부조장터, 장골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었다.⁶⁶ 동계를 구성하는 마을 주변에 발달한 나루와 장시를 계기로 경제

61 “厭憚廳下 不有座上 徑先徹去 必有異意 戊戌十一月二十四日”(『洞案』 甲午改案).

62 양란과 하층민의 성장에 따라 기존 사족의 향촌지배가 위기에 직면하자 사족은 향약, 동약, 족계의 규약을 제정하여 기존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하층민의 복종을 강조했다(李樹健(1990), 앞의 논문, 95-96쪽).

63 1688년(숙종 14) 제안이다(『契案』, 完議序·節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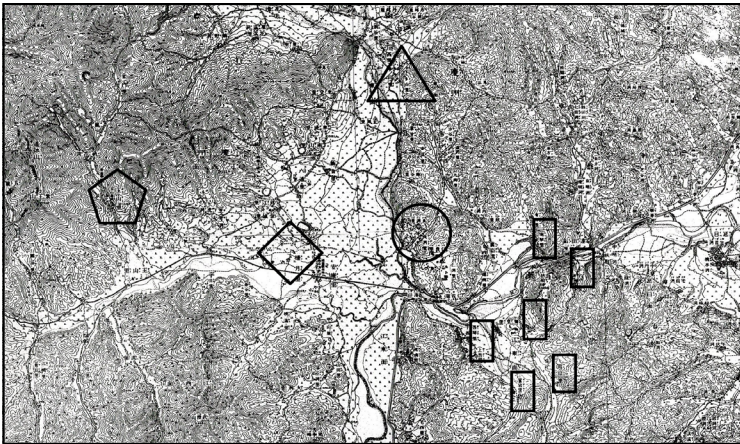
64 17세기에 삭거(도할)의 흔적이 확인되는 인물은 1663년 鄭克一, 1670년 陳聖壽과 金顯章, 1674년 鄭鳴周, 1678년 金顯章과 李景培, 1682년 鄭宗周, 1685년 金顯九, 1693년 鄭適周, 1697년 金顯乾이다. 정적주와 김현건이 효주 후 동안에 오르지 못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중신할 때 까지 계원으로 입록했다.

65 鄭克後, 『雙峯先生文集』 권4, 「萬歸亭記」; 『東京雜記』 권1, 「勝地」, 萬歸亭;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萬歸亭址』(2002), 65쪽.

66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경북편)IV(1979), 196-197쪽. 이 외에도 부조 장꾼들이 돈치기를 하고 놀았다고 하는 ‘돈태구디니’와 부조 장꾼들과 뱃사람들의 김부에게 기복을 했던 김부대왕사당(金傅大王祠堂) 등이 있다.

적 처지의 변화가 수반되고 그로 인해 사족들이 사회질서가 흔들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동계 내의 갈등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계에 이른바 사회질서의 확립을 강조한 내용은 동계에 향약의 요소가 결합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당리 동계는 옥산서원으로부터 『정속언해(正俗諺解)』와 『향약』을 받았다. 현재 옥산서원에 전하는 『향약』에 '기해3월(己亥三月)'의 장서기가 있으며, 그 시기는 1659년경으로 이때 책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⁷ 동계는 이후 향약을 바탕으로 향풍을 진작하는 차원에서 향약의 '4대덕목'에 따라 성리학적 동계 질서를 갖추려 했다고 하겠다.⁶⁸ 이에 앞서 1630년(인조 8) 영천군(永川郡)은 사헌부의 지시



* □=상동계, ○=양동 동계, △=다산리 동계, ◇=양월 동계, ⬠=옥산서원

그림1-경주 강동면 상동계와 일대 동계 분포⁶⁹

- 67 옥산서원은 내사·기증·구입으로 장서를 갖추었으며, 임란 이후 忠孝禮와 관련한 도서를 출판·기증 받았다(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190-193쪽).
- 68 이 부분은 이 후 윤음을 하사 받은 것으로 전환하여 전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상동계의 의절 중 윤음을 읽었다는 것은 곧 향약을 읽었다고 볼 수 있다.

에 따라 각 면과 동리에 향약의 실시를 강조하고 규약에 따른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도모했다.⁷⁰ 이와 관련해서는 17세기 이후 동약의 내용이 향약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사족 거주 촌락에서 실시한 향약을 동약으로 규명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⁷¹ 따라서 국당리 동계도 17세기 중엽 이후 동계에 향약의 덕목을 적용한 동약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 인근 동리에도 동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그림 1)

국당리 동계는 주변 마을의 동계와 관련이 있었다. 일찍이 양동리는 촌락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안」과 일부 양반과 상한(常漢)이 참여한 「향약」의 이중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⁷² 그리고 양월리는 1676년(숙종 2) 「향약안(鄉約案)」을 마련한 후 1687년(숙종 13) 「리안(里案)」에 동규(洞規)를 설정하였다.⁷³ 양동리 동안과 양월리 향약안 참여 인사들 중 국당리 동계와 관련한 인사들이 있었다.⁷⁴ 국당리 동계 인근 다산리 동계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난다. 국당리 동계 계원이 다산리 동계에서 확인되며,⁷⁵ 다산리 동계 입록자들의 생졸을 고려할 경우 다산리 동계는 국당리보

69 『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朝鮮總督府, 1918).

70 慶尙北道·嶺南大學校, 『慶北鄉校誌』(三光出版社, 1991), 450-451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慶北鄉校資料集成』(I)(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71 정진영(1998), 앞의 책, 225쪽.

72 정진영(1998), 앞의 책, 362쪽.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점은 鄉案 중심의 鄉規에서 동안 중심의 상·하 합계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박경하, 「壬亂直後の 鄉約에 대한 研究」, 『中央史論』 5(1987), 96-101쪽).

73 韓國國學振興院, 『慶州李氏 楊月門中 古文書資料集成』(2009), 732-736쪽.

74 양동리 동계에 참여한 인물 중 국당리 동계와 관련한 인사가 있다. 1609년 동계에 蔣啓賢을 비롯한 그의 3아들이 손·이 양성과 함께 좌목에 올라 있으며, 1613년에는 蔣惟輔·蔣惟寬 형제와 안동권씨 權瑩이 참여했다. 이들은 1627년 경 국당리 동계 설립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들·손자가 관여했다(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7), 앞의 책, 681-685쪽, 921-9233쪽). 양월리 「향약안」 좌목에 국당리 동계와 간접 관련이 있는 안동권씨, 아산장씨 가계 인물이 있다(韓國國學振興院(2009), 앞의 책, 704-709쪽).

75 다산리 동계의 경우 70명의 계원 중 국당리 동계에 입록된 인물로는 陳益亨을

다 한 세대 뒤인 1657년(효종 8)에 조직되었다. 다산리는 동계좌목과 더불어 이른바 『주자증손향약(朱子增損鄉約)』을 규약으로 밝혔다. 이와같이 국당리 동계는 1609년(광해군 1)에 설립된 양동리 동계의 영향을 받아 다산리 동계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당리 동계의 규약 중에는 상부상조에 근거한 호혜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서는 국당리보다 앞서 동계를 실시한 양동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1609년(광해군 1) 「양좌동안(良佐洞案)」에는 인구 증가와 신생 촌락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인근 한광지(閑曠地) 개간과 축보(築洑)문제로 원주민과 이주민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었다.⁷⁶ 그리고 1613년(광해군 5) 「계중약문(契中約文)」에는 상사 부조할 물건과 수합에 관한 12개 규약을 규정했다.⁷⁷ 양동리 동계의 경우 마을의 이익과 상생을 위한 공동체 규약이 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⁸ 이로 본다면 국당리 동계에도 마을의 이해와 관련한 규약과 더불어 상사와 관련한 상호부조를 통한 협동의 규약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비슷한 신광진씨, 鄭克咸 등 영일정씨, 權鑿 등 안동권씨, 崔是蕃 등 경주최씨, 蔣僖과 아산장씨 등 20명이 있다(三綱祠事蹟重刊委員會, 『국역 三綱祠事蹟』, 「江東約立-東多山」·「朱子增損呂氏鄉約」(2016)).

76 李樹健(1990), 앞의 논문, 94-95쪽.

77 李樹健·李樹煥·鄭震英·金容晚,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土族의 鄉村支配」, 『民族文化論叢』 15(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4), 106-107쪽.

78 박종천은 동약을 지역 공동체 규약으로, 향약을 상장례 수행을 위한 생활공동체 규약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계중약문」을 향약으로 분류했다(박종천, 「상생의 마을 공동체-동계와 향약」,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134-138쪽).

2. 호혜, 상사(喪事) 부물(賻物)

국당리 동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동약의 목적 중에는 계원의 상사에 상호 부조를 통한 호혜의 실현도 있었다. 성리학 이념에 따라 상사를 통한 송종(送終)의 의절은 중요한 덕목이었음에도 그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른바 상패(喪敗)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했다. 동계를 통한 상사에 대한 상호 부조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었으나 마을 구성원간의 결속으로 유형과 무형의 호혜가치 작동을 통한 상호부조의 기능은 있었다.

국당리 동계에는 부조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운영을 반영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동중상사부물차하기」(이하 「차하기」) 1674년(숙종 4)부터 계에서 상사에 부조를 실시한 내역을 담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⁷⁹ 17세기로 한정할 경우 부물 지급 대상자는 상동계원 54명이며, 이들 54명에 부조 사례는 모두 72건이었다. 부물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약이나 절목이 현전하고 있지 않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차하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조를 통한 호혜의 단면을 추적 할 수 있다.

호혜의 매개가 되는 부조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계원에 대해 동안의 좌목에는 초기 기록에서 정확한 졸년을 알 수 없으므로, 생졸기록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안동권씨의 족보기록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부록1). ‘기상(己喪)’의 경우, 권호현(權好賢, 1625-1677), 권윤경(權允經, 1652-1686)에 대해 1677년과 1686년 각각 부조가 이루어졌다.⁸⁰ 이로 보아 부조는

79 捧上내역 없이 捧下만 수록하고 있다.

80 ‘嚴親喪’ 사례인 鄭世徵의 부친 鄭衛周(1631-1698), 權斗重의 부친 權必經(1647-1699)에 대한 부물 지원은 각각 1698년과 1699년 실시되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부록 1, 4).

표3- 賻物의 지급 범위와 사례

구분	己喪	妻喪	慈親喪	嚴親喪	後室喪	養親喪	祖母喪	총합
사례	31	18	13	6	2	1	1	72

계원의 초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실시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계는 계원에 대한 부조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처와 부모도 포함하였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계는 계원의 상사에 대해 후실을 포함한 배우자와 모친에 대해서도 부조의 범주에 포함하였다.⁸¹ 계원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처와 모친에 대한 부물 지원이 있었다. 이 경우, 사망한 계원의 처와 후실 9건, 자친 5건으로 14개의 사례가 확인된다. 일례로 이형(李炯)은 동안에 1667년 사망으로 기재 되었지만, 동계는 1685년 그의 '처상'에 부목 1필과 백지 3권을 부조했다. 유두원(柳斗元)은 1685년 동안에 사망으로 나타남에도 1691년 그의 '자친상'에 동계가 부목 2필과 백지 3권을 부물로 지급했다.

호혜를 위한 부조 물력은 부목(賻木)과 부지(賻紙)였다. 17세기 부물 지급 내용은 부목 2필과 백지 2-3권이였다. 부목 2필에 대해 백지 3권이 34건, 백지 2권이 12건으로 전체 사례의 73%를 점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부목 2필에 백지 3권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목 대신 '부목조건(賻木條錢)'이 지급되기도 했다. 전문(錢文)으로 부의 한 사례는 1698년 정종주(鄭宗周)의 초상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동계는 18세기 동안 부목 대신 부전(賻錢)을 지급했다.⁸² 이는 1678년(숙종 4) 행전 이후 영남 지방에도 동전이 유통된

81 '養親喪' 1건은 계원 崔克升의 養母인 熊川朱氏(養父는 崔是藩)의 상에 대한 내용이다(부록-2).

82 동전 유통 이후에는 부목에 대해 동전으로 作錢하다가 1706년(숙종 32)부터는 白紙에 대해서도 동전으로 대신하기 시작했다(정수환, 『조선 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景仁文化社, 2013), 239-240쪽). 이 경우, 행전 초기일뿐만 아니라 계문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부목 대신 전문으로 지급할 경우 목 2필에 대해 동전 2전으로 절가하고 백지 2권을 지원한 사례 9건이 가장 많았다. 행전 이후에는 부전 2전에 백지 2권이 통례였다고 볼 수 있다.

동계는 부목 혹은 부전과 백지를 부물로 부의하였으나 규모가 일괄적이지 않았다. 1700년(숙종 26) 정우주(鄭佑周, 1582-1632)의 처상과 이경하(李擎廈)의 업친상에는 백지 1권만 지급하였다. 관계성에 따른 부물의 지급 범위와 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부물 내용의 차이 발생요인으로 부물 지원 횟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권호현과 이경배(李景培)는 3회 부물을 지원받았다. 전자는 자친과 처상에 부목 2필과 백지 3권을 그리고 자기 상에 부목 2필과 백지 2권을 지원받았다. 이경배의 경우도 업친과 자기의 상에 부목 2필과 백지 2권, 자친상에 부목 2필과 백지 3권을 부의 받았다.⁸³ 이로 본다면 상사 3회까지는 부물 지원을

표4-동계 賻物의 지급범위와 내용

구분	賻木		無			1疋			2疋			총합	
	賻錢	白紙	無		1錢	2錢		無					
			1卷	3卷	1卷	1卷	2卷	無	1卷	3卷	無		1卷
己 喪	-	-	1	1	5	-	-	2	-	-	6	16	31
嚴親喪	1	-	-	-	2	-	-	1	-	-	1	1	6
慈親喪	-	-	-	-	2	-	-	2	-	-	4	6	14
祖母喪	-	-	-	-	-	1	-	-	-	-	-	-	1
妻 喪	1	1	-	-	-	-	1	3	1	1	1	9	18
後室喪	-	-	-	-	-	-	-	-	-	-	-	2	2
총 합	2	1	1	1	9	1	1	8	1	1	12	34	72

* 賻錢은 '賻木條錢'이다. 養親喪은 '慈親喪'에 포함되었다.

서 회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作錢이 실시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83 부물을 2회 지원받은 사례는 13명이며, 1회만 지원받은 사례는 37명으로 지원 횟수에 따른 차등 변수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우주는 「차하기」에 3회에 걸쳐 부물을 지원받았으나 규모가 줄었다. 동계는 정우주의 상사에 대해 1683년(숙종 9) 자친상에 부목 1필과 백지 3권, 1686년(숙종 12)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목 2필과 백지 3권, 그리고 1700년 그의 처 초상에 백지 1권을 부물로 보냈다. 동계는 계원 부부와 부모에 대한 부물 지원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운영 상황에 따라 절충하고 있었다.

상동계의 입록 기간이 부물 지원의 규모에 영향을 끼쳤다. 이경하는 「동안」에 1693년 입록 후 7년 만 계원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그의 업친상에 백지 1권만 지원받았다. 이는 부목 1필 이하, 부전 1전 이하 그리고 백지 1권 이하를 부물로 지급한 사례 5건에서 알 수 있다.⁸⁴ 권득경(權得經)은 1674년 「동안」에 입록하고 이듬해 조모상을 당하자 계로부터 부목 1필만 지원받았으며, 이만갑은 1693년 「동안」에 입록 하고 1698년 세상을 떠나자 부전 1전과 백지 1권을 부물로 지원받았다.

계원에 대한 부물 지원에 있어 목 2필이나 전문 2전에 대해 백지 2-3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상사 빈도의 증대는 지출의 증대로 이어졌다. 지원 증대 추이는 시기별 부물 지원 내용을 정리한 표5에서 알 수 있다. 5년 단위로 상사 발생의 추이를 정리한 표에 의하면 동계의 부물 지출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후반의 을병대기근(1695-1696)을 고려할 수 있다. 동계 입록자가 증대하고 이와 동시에 대기근으로 인해 상사가 증대함에 따른 재원운영의 제약이 부물의 규모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국당리 동계는 계원의 상사에 부물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성이나 규약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목표는 호혜의 실현이었다.

84 1675년 權重賢의 內室喪과 權得經의 조모상, 1698년 李萬甲 의 己喪 그리고 1700년의 鄭佑周의 妻喪과 李擎廈의 嚴親喪이다.

표5-시기별 부물 지원 내용

기간	購木 購錢 白紙		無			1疋			2疋			총 합	
			無		1錢	2錢		無					
	1卷	3卷	1卷	1卷	2卷	無	1卷	3卷	無	1卷	2卷		3卷
1674-1675	-	-	-	-	-	1	1	-	-	-	2	2	6
1676-1680	-	-	-	-	-	-	-	-	1	-	1	7	9
1681-1685	-	1	-	-	-	-	-	8	-	-	-	-	9
1686-1690	-	-	-	-	-	-	-	-	-	-	3	9	12
1691-1695	-	-	-	-	-	-	-	-	-	1	5	7	13
1696-1700	2	-	1	1	9	-	-	-	-	-	1	9	23
총 합	2	1	1	1	9	1	1	8	1	1	12	34	72

V. 맺음말

조선시대 동계가 지니고 있는 호혜의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현대 농촌개발과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의 상동계 사례를 분석했다.

국당리에는 현재 '상동계'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상동계는 1598년 임란 직후 권복시의 주도로 향약을 원용한 동계로 창립되어 400년 동안 상사에 부조하는 호혜의 가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전통을 발견하였다. 상동계는 국당리를 중심으로 6개 마을의 6성씨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동계의 구성원은 경주의 다른 마을의 계원보다 사회적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전승하고 있다.

국당리 상동계 전통의 실체를 밝혔다. 동계 설립은 국가와 관에서 전후 복구를 위해 향약 등의 실시를 장려하는 분위기에 따라 경주 일대 엘리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설립 시점은 현전하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1627년(인

조 5) 즈음으로 볼 수 있다. 호혜를 위한 동계의 공간과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는 설립 당시 3개 마을의 5개 성씨가 주도하였으나 이후 참여 사족이 8-12개 성씨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6마을로 정착했다. 다만, 국당리가 동계의 중심공간으로 대두한 것은 동계 구성원 중 국당리 거주 안동권씨의 비중이 증대한 18세기 이후였다. 국당리 일대에 거주하는 사족은 동계에 입학할 수 있었으나 이거할 경우 제외함으로써 호혜를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동계는 상사에 부조를 실천하여 계원 사이의 호혜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동계에는 운영을 위한 공사와유 유사를 갖추고 참여 및 지출을 규약에 따라 실시했다. 국당리 동계는 17세기 중반 인근 포구 상업의 발달을 계기로 부를 축적한 인사들에 의해 계원간 신분 갈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봉합하여 호혜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려 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 향약적 성격이 동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상호부조의 성격이 대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계를 설립하여 동중 이익을 도모하던 양동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국당리 동계의 이러한 성격은 인근의 다산리 동계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674년(숙종 4) 국당리 동계의 호혜 내역을 기록한 상사 부물의 지출 내역은 이 동계의 호혜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계원 부부와 부모에 대한 상사에 대해 부물으로써 부목 혹은 부전과 부지를 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계 가입 기간이나 계의 재원 상황에 따라 지원 내역을 변동함으로써 지속적인 호혜 실현을 도모했다.

경주 국당리 동계는 17세기 창립된 이후 18세기 전통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통의 실체는 동계의 창립이 특정 개인의 절대적인 기여가 아닌 국가와 관 그리고 인근 마을의 영향에 힘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7세기 동안 동계는 상사의 부조라는 호혜의 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8세기 '상동계'라는 전통으로써 마을 주민과 계원사

이의 결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리학적 마을의 구현이라는 일종의 '향촌개발', 혹은 '마을개발'을 실현하려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비록 400년 전통이 그 실제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동계의 구축, 그리고 지속 및 유지 노력은 하나의 유산(Legacy)으로 현대 국당리 일대에 남았다. 이 점이 현대 대한민국 농촌개발을 작동하게 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 No. 35-9932(경주 국당리 상동계 고문서).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경북편)IV. 1979.

『府尹先生案』, 『東京雜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戶口總數』.

朴毅長, 『觀感錄』.

柳馨遠, 『磻溪隨錄』.

鄭克後, 『雙峯先生文集』.

孫起陽, 『鰲漢先生文集』.

趙克善, 『冶谷日錄』.

_____, 『忍齋日錄』.

『慶州崔氏家譜』(1948), 『慶州崔氏從仕郎公派譜』, 『安東權氏佐尹公派 判官公世系譜』,

『迎日鄭氏貞肅公派譜』(己亥譜), 『永川李氏上將軍派譜』.

慶尙北道·嶺南大學校, 『慶北鄉校誌』. 三光出版社, 199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慶北鄉校資料集成』(I).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李樹健 編著,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81.

韓國國學振興院, 『慶州李氏 楊月門中 古文書資料集成』. 200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32-慶州 慶州孫氏篇. 1997.

2. 단행본

더글라스 노스 저,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6.

로버트 퍼트넘 저,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박종천, 「상생의 마을 공동체-동계와 향약」.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한국학 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115-151쪽.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RH Korea, 2010(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The Evolution of Institution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1990).

李樹健, 「良洞의 歷史的 考察」. 『良佐洞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90, 16-98쪽.

李樹煥, 「書院의 歷史와 그 所藏資料」.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出版部, 1993, 3-101쪽.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景仁文化社, 2013.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제임스 스콧 저,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J.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le Univ Press, 1976).

Hobsbawm, Eric. "Mass-Producing Traditions:Europe, 1870-1914", in Hobsbawm, Eric. and Ranger, Terence.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263-308.

3. 논문

박경하, 「壬亂直後の 郷約에 대한 研究」. 『中央史論』 5, 1987, 93-115쪽.
이광우, 「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 『東亞人文學』 39, 2017, 137-178쪽.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李樹健·李樹煥·鄭震英·金容晚, 「朝鮮後期 慶州地域 在地土族의 鄉村支配」. 『民族文化論叢』 15, 1994, 59-150쪽.
장동표, 「17세기 초반 밀양 재지사족 孫起陽의 향촌활동」. 『한국민족문화』 34, 2009, 171-201쪽.
_____, 「조선시기와 명청대의 郷約 시행과 그 성격 비교 연구」. 『한국민족문화』 58, 2016, 237-263쪽.
鄭求福, 「礪溪 柳馨遠의 事會改革思想」. 『歷史學報』 45, 1970, 1-60쪽.
鄭震英, 「16世紀 安東地方의 洞契」. 『嶠南史學』 장간호, 1985, 217-237쪽.
한미라, 「조선후기 가좌동 禁松契의 운영과 기능: 경기 양성현 '禁松契座目'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5, 2011, 141-173쪽.

Suhwan, JUNG, "Post-Development Alternative Ideas Regarding Saemaul Rural Development a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60, 2015, pp. 247-275.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농촌개발의 동력을 토착농촌에서 발견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조선 17세기 동계를 호혜(Reciprocity)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사례는 경상도 경주 국당리에 전하고 있는 동계문서이다.

국당리는 임진왜란 직후 특정 인물 주도로 '상동계(上洞契)'가 조직되고 경조사(庚子抄)의 부조를 행하여 400년 동안 여섯 마을의 여섯 성씨가 동계를 계승하고 있다는 '전통'을 '발견'하고 계승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대해 17세기 동계 문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의 실체를 밝히고, 동계 구성원 사이의 호혜의 원리를 검토했다. 국당리 동계는 1627년경 국당리를 비롯한 4-6개 마을에 거주하던 8개 성씨의 중심인물들에 의해 설계(設契)되었으며, 17세기 동안 12개 성씨 118명이 계원으로 출입하였다. 동계의 규약은 국당리 주변 마을의 사례를 참고했을 경우 향약의 원리를 원용하고 있었으며, 호혜를 위한 제도(Institutions)로 동약(洞約)을 운영했다. 그리고 동계의 호혜 내용은 현전하는 자료 중 상사(喪事)의 부물(賻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계원의 친족 범위를 대상으로 호혜를 위해 부조하는 규약이었다.

17세기 경주 국당리 동계는 다수 마을의 다수의 성씨에 의해 창설되어 호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부조라는 호혜를 실천했다. 이러한 동계의 실체에 대해 18-19세기 동안 상동계 전통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계승하고 있다. 조선후기 동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당리 사례는 현대 농촌개발에 있어 호혜 가치 작동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가능하게 했던 토착적 배경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투고일 2019. 6. 20.

심사일 2019. 7. 18.

게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경주(Gyeongju), 동계(Village Compact, Kye), 국당리(Kookdang village), 호혜(Reciprocity), 개발(Development),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Abstracts

The Reciprocity Value and Tradition of the Kookdang Village Compact in 17th Century Choson, Korea

Jung, Su-hwan

The aim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community value of local society during the Choson dynasty and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modern Korean rural development evolved from this case. The focus will be on historical documents, in particular the village compact (kye) formed in the 17th century in the area of Kookdang village (Gyeongju, Gyeongsang province).

Kookdang village organised its village compact, the Dong Kye, around 1627 after the Imjin Japanese invasion. Members were required to be male elites from one of 12 clans who were living in Kookdang village and four to eight nearby villages. In total, there were 118 members of this kye in the 17th century. It was sustained by its regulations, including who could compose its staff, as well as the conditions for withdrawal and reciprocity rules. The main role of this kye was helping to provide materials for the funeral ceremonies of its members as part of the reciprocity agreement, which extended to the wives and parents of members. The Kookdang Dong Kye furnished support in the form of cloth and paper, which were necessary for the funeral, to the members just after death. In this kye, which survived into the 20th century, membership was passed on to subsequent generations. The members of this kye invented traditions that were distinctive and predominant compared to those of other local kyes in the 20th century.

The Dong Kye case provides some clues for examining modern rural development movements in Korea. Even though the Kookdang village compact is a case of invention of traditions, which included the reorganisation of the village's trajectory and adjustment of contemporary community targets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it furnishes background for rural development movements in 1970s Korea, especially the tradition of reciprocity and its legacy of organising a community regulated by its own institutions.

